

# 정기명 여수시장, 여수만 르네상스 프로젝트 점검

각 만별 실행과제 추진계획 점검  
프로젝트 비전 전략목표 재확인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 등 살피  
“분기별 성과·달성 점검할 것”

정기명 여수시장이 민선 8기 최대 공약인 ‘여수만 르네상스 종합개발계획’의 진척 상황을 직접 점검했다.

정 시장은 지난달 29일 시청 회의실에서 해당 국·소·단장 등 부서장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수만 르네상스 종합 발전 본격 추진을 위한 세부실행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현재 진행 중인 여수만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각 만별 실행과제에 대한 부서별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개선·보완점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정 시장 주재로 총괄 보고와 세부실행계획 보고, 토론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여수만 르네상스



정기명 여수시장이 지난달 29일 여수시청 회의실에서 민선 8기 최대 공약인 ‘여수만 르네상스 종합개발계획’의 진척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여수시 제공

프로젝트의 비전과 전략목표를 재확인했으며, 56개 주요 대표실행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대표 실행과제는 △여자만 둘레길(고

흥·보성·순천·여수) 조성,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 △장수만 섬 관광특구 지정, 친환경 섬 이동체계 구축 △가막만 마리나 R&D센터 건립,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육성 △여수해만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 위케이션 활성화 체계구축 △광양만 수소도시 조성, 석유화학산단 신산업 전환 등이다.

앞서 시는 여수만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최종 용역에서 제시된 61개 사업과제에 대해 한 달여간 부서 협의를 마쳤으며, 56개 실행과제 확정과 함께 해당되는 20개 추진부서별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사도·추도·남도 등 장수만 일대의 국가지질공원 인증과 화양면 안포리 일원의 뷰티·스파 웰니스센터 건립 등 일부 과제는 이미 실행에 돌입했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앞으로도 분기별 성과 달성 여부를 점검하고 시민에게 진행 상황을 알릴 계획이다”며 “속도감과 완성도를 높여 우리 시의 비전인 ‘남해안 거점도시 미항 여수’를 앞당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이와 관련 공무원 벤치마킹 원정대와 시책 연구 모임 연계를 통해 국내외 선진사례를 분석하고 연구해 지속적으로 신규 과제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여수=이경기 기자

## 주민참여예산위 총회서 462개 사업 확정

예산 261억8300만원 의결

여수시가 지난달 28일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를 열고 내년도 사업 462건에 대한 주민참여예산 261억8300만원을 의결했다.

1일 여수시에 따르면 이날 총회에서 여수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김신 위원장 등 위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분과위원회별로 심의한 주민 제안사업과 1억원 한도 내에서 발굴한 지역발전 특화사업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다.

앞서 시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읍면동 지역회의를 통해 도출된 주민 제안사

업 667건을 접수해 검토한 후 462개 사업, 261억8300만원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분과위에 상정했다.

상정된 안건은 분과위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됐으며 여수시립 요양병원 노후 물탱크 교체 사업 등 3건에 대한 지역발전 특화사업 예산 2억원을 내년도 예산편성 대상으로 확정했다.

정기명 시장은 “주민이 직접 사업을 제안하고 정책에 참여해 예산을 편성한다는 점에서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자치 실현의 근간이다”며 “발굴된 생활밀착형 사업들을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시정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여수=이경기 기자



여수시 주삼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들이 지난달 28일 봉강마을 텃밭에 1000포기 배추 모종을 심고 있다. 여수시 제공



여수시 서강동 주민들이 연등천에 EM흙공을 던지고 있다. 여수시 제공

## 서강동, ‘EM 흙공던지기’로 연등천 정화

여수시 서강동(동장 심순섭)이 지난달 28일 연등천 일대 수질개선 및 환경정화를 위해 ‘EM(Effective Micro-organisms, 유용한 미생물) 흙공 던지기’ 행사를 진행했다.

1일 여수시에 따르면 EM흙공은 효모와 유산균, 누룩균 등 80여 종의 미생물로 구성된 것으로 하천 바닥에 퇴적된 오염물질 제거에 탁월하다고 알려져 있으며 이를 통해 악취제거 및 수질개선에 쓰인다.

이날 투입된 1000여 개의 EM흙공은 서강동 주민과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등이 지난 5월에 만든 것으로 3개월간의 발효 과정을 거쳐 직접 하천에 투입함으로써

연등천 수질 환경 개선을 도모했다.

생태계 보호를 위한 환경 캠페인과 연등천 주변 정결 활동을 병행함으로써 깨끗한 환경 만들기에 힘썼다.

서선기 주민자치위원장은 “바쁜 일정에도 적극 참여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환경을 살리고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작은 실천이 인근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심순섭 동장은 “깨끗한 연등천을 미래 세대에 남겨주기 위해 노력하는 서강동 주민과 위원들께 큰 감사를 드리며 동에서도 깨끗한 연등천 살리기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여수=이경기 기자

## 주삼동 협의체, 유희 텃밭에 배추 모종 심기

여수시 주삼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이권철)가 지난달 28일 봉강마을 내 유희 텃밭에 1000포기 분량의 배추 모종을 심었다.

1일 여수시에 따르면 이날 행사는 주삼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주관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등 유관 단체 회원 30여 명이 참

여했다.

주삼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024년 연합모금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랑의 김장 김치 나눔’을 위해 올해는 직접 배추를 심고 기르고 수확하여 건강한 재료로 김장을 준비해 소외계층과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께 전달할 예정이다.

이권철 위원장은 “배추 모종 심기를 시

작으로 김장을 준비하게 되어 올해는 더 뜻깊은 연말 행사가 되겠다”며 “봉사에 참여해 준 분들의 마음을 받아 배추가 무럭무럭 잘 자라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여수시 주삼동 관계자는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해 준 유관단체 회원들께 감사드린다”며 “지역 내 나눔 문화가 확산되도록 행정업무도 따뜻한 눈길과 손길로 살피겠다”고 말했다.

여수=이경기 기자

## ‘폐축사 악취’ 울촌 도성마을 180억 들여 환경 개선

농촌공간정비사업 공모 선정

여수시가 울촌 도성마을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악취 문제해결을 위해 준비에 나선다.

시는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농촌공간정비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되어 총 18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30일 밝혔다.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축사, 폐건물 등 농촌 마을의 난개발과 유해 요소를 정비

하고, 정비한 공간을 주민편의시설로 활용해 농촌 공간의 재생과 정주 환경 개선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시는 국비 90억 원, 도비 27억 원, 시비 63억 원을 투입해 울촌 도성마을 일원 폐축사를 철거해 농지로 복원할 방침이다.

또한 심각한 악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방취림을 조성하여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마을주민을 위한 ‘치유의 길’을 계획

하고 있다.

앞서 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사업 추진 일정을 협의해 올해 하반기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농촌을 살고 싶은 농촌다운 공간으로 만드는 첫걸음으로, 도성마을 주민들의 50여 년 숙원이었던 악취 저감으로 삶의 질 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농촌이 살터, 일터, 쉼터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수=이경기 기자